

1)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미의식의 성립

 Rp' Institute.....미술의 혁명(변화과정)

미술의 혁명, 세계를 바꾼 22개 극적 전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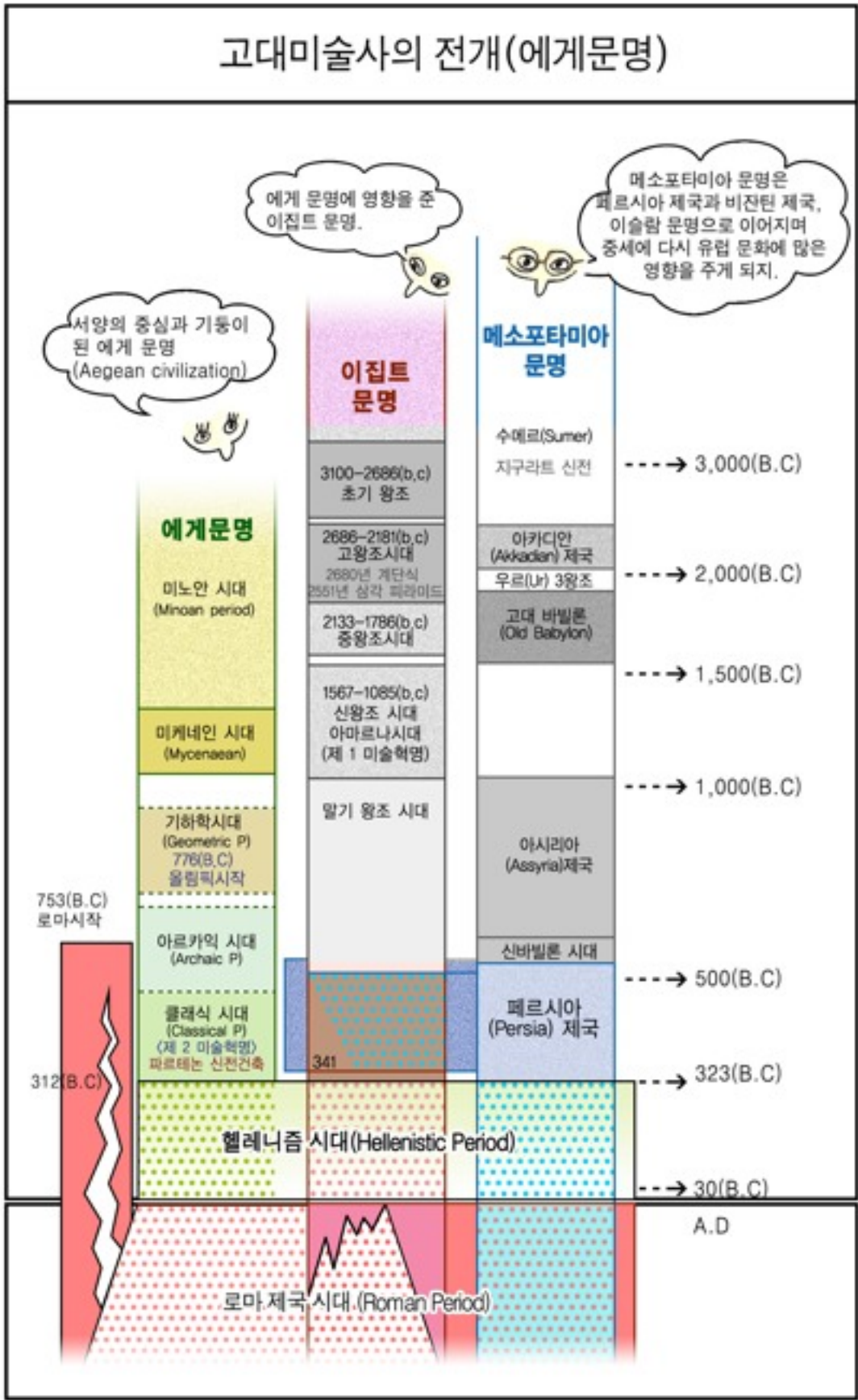
| 변환 단계 | 변환내용 |
|-------|---|
| 1단계 | 실용적인 보편적 미의 성립(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미를 찾아내 그것을 상품으로 만든 크레타인들의 미의식) -고대 크레타와 사이프러스인의 미의식 |
| 2단계 | 인류 첫번째 종교와 미술의 혁명(아마르나 미술) 이집트의 신왕조 시대의 미술 |
| 3단계 |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의 성립 -그리스 고전주의 시대 미술의 변화와 발전 |
| 4 | 중국의 청화백자가 바꾼 세계성과 보편성의 성립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
| 5 | 물질이 눈을 바꾼 미디어로 이론 최초의 미술 혁명 -오일칼라의 발명 |
| 6 | 원근법으로 존재하는 미술이 보는 미술로 바뀌었다 - 불루넬레스키와 마사치오 |
| 7 | 만남의 예술, (인문학, 과학과 미술의 만남) -피에로 델라 프란치스코와 다빈치 |
| 8 | 정치와 미술의 만남(조화성의 미술) 메디치의 정치적 야망과 르네상스의 모순 |
| 9 | 신성의 몰락과 종교개혁미술 등장 -르네상스 몰락, 매너리즘이 등장할 수밖에 |
| 10 | 생동의 미와 감동미의 시대 -카라바조의 전성시대와 새로운 미학의 등장 |
| 11 | 근대미술의 혁명,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다 -고야가 이론 근대미술의 혁명이란? |
| 12 | 시민을 위한 미술, 인간을 위한 미술의 태동 -밀레와 바르비종 파의 도전 |
| 13 | 존재하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인상파의 도전과 고난 |
| 14 | 사물 속으로 들어가기는 내 안으로 들어가기 --인류를 바꾼 세잔느의 사과 |
| 15 |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것은 구두와 의자가 아니다 |
| 16 | 욕망의 미학의 전개 --아름다움은 욕망으로부터(에곤실레와 비엔나의 반역) |
| 17 |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않는 세계로 -사실은 눈에 보이지않는 그것들이 영원한것 |
| 18 | 의미를 파괴하고 새로운 이름을 내가 붙인다- 오브제 미술과 구조주의 시대출현 |
| 19 | 미술을 일상으로 끌어내리다 -대중문화와 대중미술의 시대 |
| 20 | 무의미의 의미화로 미술의 영역을 넓힌다 -개념미술의 등장 |
| 21 | 황금가지를 버린 유목민의 미술 -구조를 벗어버리고 탈구조의 시대로 |
| 22 | 신자연주의 미술의 등장 -탈구조주의 시대의 대안, 인간본연으로 돌아가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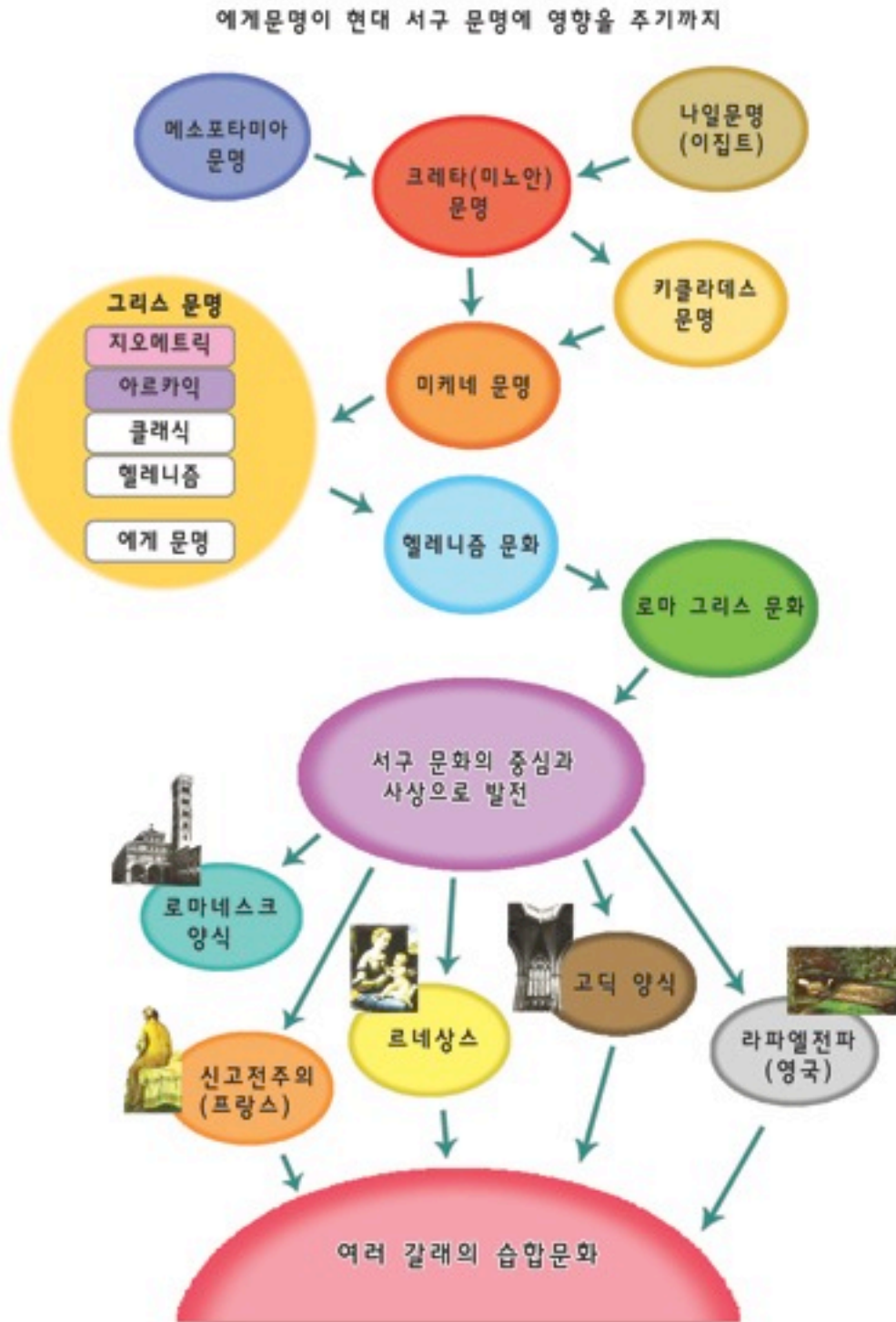
크레타문명(미노안)이 지배한 에게바다 기원전 **2500**년전부터 **1500**년까지



미노소스 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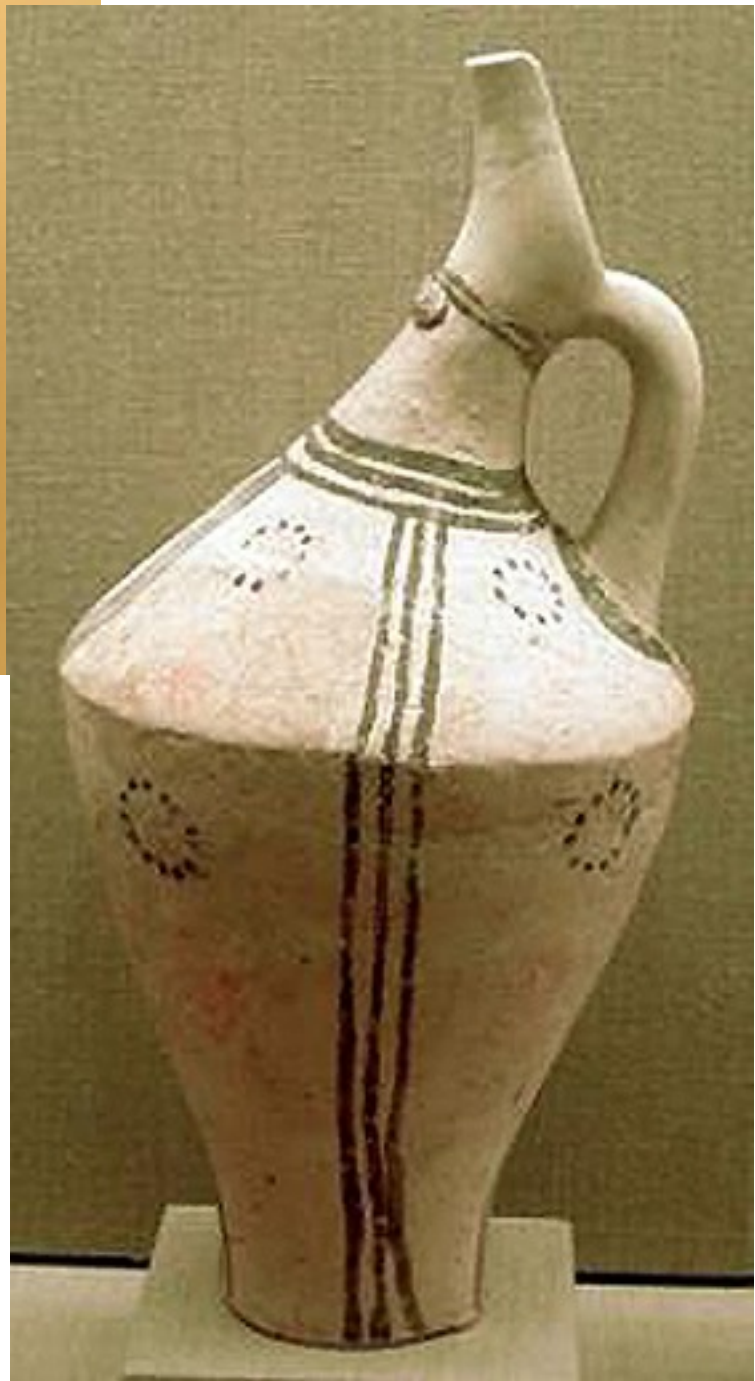
에게문명이 왜 중요한가?



보편적, 객관적 미의 세계가 주는 힘







예게문명의 발견




그런데 정말 예게 문명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4대 문명과 같은 자격이 있느냐고?

문명에도 자격이 있는 거야?


한강 문명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문명이란 자기네 고유 문자를 사용하며 사회 체제를 갖고 문화생활을 했을 때에 붙여주는 이름이야.

정말 왜 문명이라고 하지?

그럼 고대 문명은 기원전의 고대 사회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크레타문명과 미케네문명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그들이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당연하지.

응. 그들의 문명을 예게문명이라고 하잖아.

에게문명은 4대 문명과 어떻게 다르지?



에게문명은 4대 문명에 끼지 못했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냐?

나도 황하, 나일,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은 들어 보았지만, 에게문명은 생소해.

4000년 전 최초의 인류 무지발진.



20세기뿐만 아니라 기원후 거의 2천 년 동안 세계의 중심 문화였잖아?

기원전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중심이었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에게문명이 사실 세계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명이 왜 4대 문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

그건 뒤늦게 크레타 문명이 발굴 되었기 때문이지.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

에게문명이 서양 문화의 기초?

많은 부분에서 기초가 되었지.



사상의 기초

윤리와 도덕의 기초

문학, 예술의 기초

신화구조의 기초

그래서 20세기에 에게 문명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구나!

20세기에는 서구 문명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에게 바다에서 기원전 2800년 전부터 급속도로 발달한 문명을 말하지.

3,000여 년 전부터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는 비슷한 시기네.

그리스
에게해
터키
아테네
크레타
지중해

에게문명이 정확히 어디 문명을 말하는 것이지?

지도를 봐.

동부 지중해의 그리스와 터키 크레타 섬 사이에 있는 바다의 이름이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은 문화 아닌가?

두 문명의 이웃에 있으니 영향을 주고 받은 것은 확실하지.

나일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 문명

- 헬레니즘
- 클라시
- 이르키지
- 지오메트릭
- 에게 문명

우선 문화 발생의 기초의 되는 자연환경과 기후가 다르잖아.

기후와 자연, 지리적 조건!

기후적 조건

생태지역 (기후)

사막지역

해안지역

평지지역

산악지역

몬태지역 (짧은 겨울)

(기후) 몬태지역 (긴 겨울)

냉대기후

강계조건

가축, 언어, 예술자

자연 조건

그러나 전혀 다른 독창적인 문화로 발전했잖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과는 어떻게 다르지?

에게문명 정신 안에는 성공과 발전, 행복을 원하는 현대인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어.




성공과 발전,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게 뭔지 몰라도 그럼 우린 태어나면서 불리한 조건 속에 있는 거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만약 에게문명 속에만 그것이 있다면 다른 문명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일단 불리하잖아

그것이 왜 에게 문명에만 있다는 거야?

그것이 뭐야?

와! 씨도 심지 않고 열매 타령하네.

에게문명이 추구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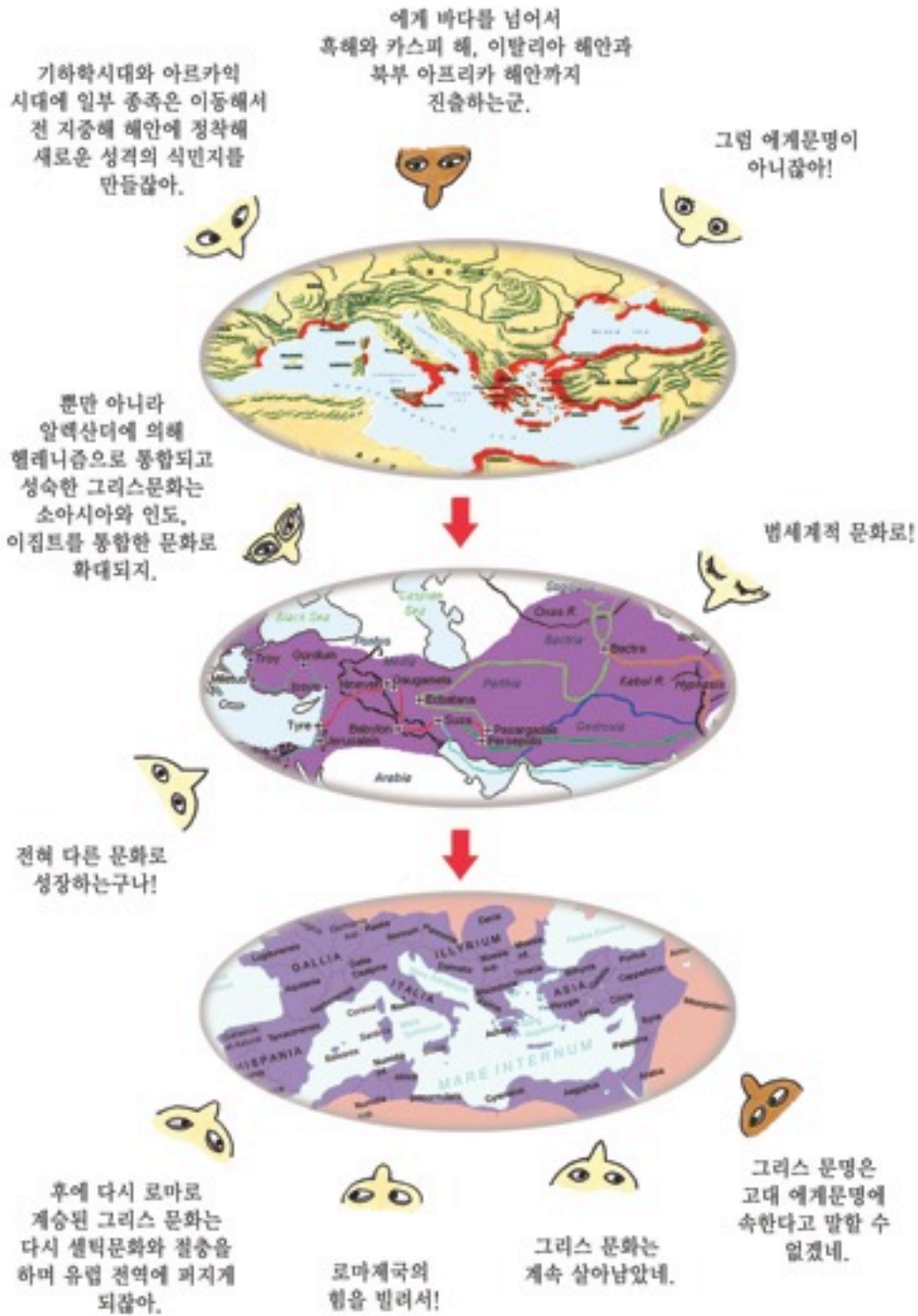
보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에게문명이 이룬 것 → 다양성을 갖고 개성화 시도에 성공



에게문명이 추구하고 이룬 것이지.

그게 뭐냐니까?



당연하지, 고대 크레타 문명을 흡수하고 알렉산더와 로마에 의해 에게 바다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야.



그러면 에게문명이 그리스 문명에 포함 된다고 말해야겠네.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

문명도 마치 스승과 제자, 친구, 연인처럼 만나 영향을 주고받네.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을 해 땅하게도 하지.



지금도 종교를 기반으로 둔 문명들이 다투고 있잖아.

고대 그리스 문명은 요즘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왜 현재의 그리스는?

조용할 정도로 가라앉아있느냐 말이지?



글쎄? 다른 문명과 달리 그리스 문명은 최근까지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지.



다른 문명에는 보편성과 합리성이 없었어?

메소와 이집트 문명에는 그것들이 정말 없었던 거야?

황하문명과 인더스 문명에는?

합리성

보편성

보편성과 합리성이 에게문명 속에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이지?



에게문명의 구조 속에서 발전한 서구의 대표적 나라가 어디지?

유럽과 미국.

이 틀속에 에게문명이 속성인 보편성과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그 보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다시 다양성을 추구한 후 개성화 시도에 성공했다는 점이지.



맞아! 20세기 후반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 영국로 색슨의 자본주의지

호주와 캐나다도 있네.

성공

번영

왜?

그것이 성공과 번영, 행복의 도구란 말이야?

중요한 속성소지.

보편성과 합리성이 왜 중요하지?

보편성



합리성



그건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 제기된 문제 아냐?

그리스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도....

알렉산더제국에서도 정치적인 이념으로 실현되었잖아?





보편성과 합리성이?

어떻게?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난 후, 무력을 통한 강압적인 통합을 포기했잖아.



아! 결혼정책으로 통합과 화해를 추구한 후, 그리스 문화와 메소문화가 통합되어 보편성을 갖추는 길을 마련했지.



보편성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보편성은 바로 누구와도 어떤 상황에도 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누구나 쉽게 mp3로 화일로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영국사랑 열린강좌 지난회 리스트 > 바로 가기

영국사랑 열린강좌 1회 : 포스트모더니즘의 전야, 예술과 사회

영국사랑 열린강좌 2회 : 축구게임의 법칙과 라파엘로 미술, 그리고 리버풀로 가는 스피릿 여행

영국사랑 열린강좌 2회 주제토론1 : 조화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2회 주제토론2 : 내가 생각하는 내 삶 속에서의 조화의 의미

영국사랑 열린강좌 2회 참고자료(ZIP)

영국사랑 열린강좌 3회 1강 : 모더니즘 전야, 왜 시대를 읽어야 하는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3회 2강 : 모더니즘, 어떻게 시대를 읽어야 할까?

영국사랑 열린강좌 3회 3강 : 포스트모더니즘,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3회 참고 자료(ZIP)

영국사랑 열린강좌 4회 1강 : 몽크의 비명과 절규

영국사랑 열린강좌 4회 2강 : Tate Modern에서 102년만에 만난 몽크와 데미안

영국사랑 열린강좌 4회 참고 자료(ZIP)

영국사랑 열린강좌 5회 1강 : 범죄드라마로 본 영국사회구조

영국사랑 열린강좌 5회 2강 : 영국사회로 본 한국사회구조

영국사랑 열린강좌 5회 참고 자료(ZIP)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1강 : 감동을 주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2강 : 감동의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6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1강 :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1 - 영국의 미술사와 유럽의 미술사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2강 :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2 - 왜 영국에서 미술이나 예술공부를 하는거죠?

영국사랑 열린강좌 7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1강 :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1 -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세계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2강 :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2 - 정치와 종교 이데올로기의 대립

과 새정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8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1강 : 미술이란 무엇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2강 : 미술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영국사랑 열린강좌 9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10회 1강 : 한국과 영국의 문화구조1 - 다중적 구조사회에서의 생존법

영국사랑 열린강좌 10회 2강 : 한국과 영국의 문화구조2 - 다중적 구조사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영국사랑 열린강좌 10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11회 1강 : 보통사람 속에서 보통성을 극복하기1 - 무엇이 콘텐츠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영국사랑 열린강좌 11회 2강 : 보통사람 속에서 보통성을 극복하기2 - 보편성과 보통성을 이해하고 몸에 붙이기

영국사랑 열린강좌 11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12회 1강 : 경제와 미술1

영국사랑 열린강좌 12회 2강 : 경제와 미술2

영국사랑 열린강좌 12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13회 1강 : 가면 쓰고 나를 찾아가는 길1
영국사랑 열린강좌 13회 2강 : 가면 쓰고 나를 찾아가는 길2
영국사랑 열린강좌 13회 참고 자료(PPT)

영국사랑 열린강좌 14회 1강 : 미학이란 무엇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14회 2강 : 서양미학 입문

영국사랑 열린강좌 15회 1강 : 미학에 있어서 집단 의식과 한국미학의 가능성
영국사랑 열린강좌 15회 2강 : 한국적 미의식의 오류와 한국문화예술에 미친 영향

영국사랑 열린강좌 16회 1강 : 만남이란 무엇인가- 만남을 찾아서
영국사랑 열린강좌 16회 2강 : 만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영국사랑 열린강좌 16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17회 1강 : 나는 꿈꿀 권리가 있을까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17회 2강 : 나는 꿈꿀 권리가 있을까 2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18회 1강 : 보통사람들이 주체가 된 새로운 몸철학의 시대
영국사랑 열린강좌 18회 2강 : 성공을 위한 몸철학, 디자이너 예술가들을 위한 몸철학의 의미

영국사랑 열린강좌 19회 1강 : 법과 예술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19회 2강 : 법과 예술 2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19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20회 1강 : 열린 판의 시대에서의 생존법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0회 2강 : 열린 판의 시대에서의 생존법 2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0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21회 1강 : 1910년대 모더니즘 전환기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1회 2강 : 1910년대 모더니즘 전환기 2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1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22회 1강 : 21세기의 대안 - 동서양의 통합된 새로운 눈을 갖자!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2회 2강 : 21세기의 대안 - 동서양의 통합된 새로운 눈을 갖자! 2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2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23회 1강 : 동서양을 통합한 새로운 눈은 어떤 눈인가? - 새로운 세계를 위한 눈
영국사랑 열린강좌 23회 2강 : 동서양을 통합한 새로운 눈은 어떤 눈인가? - 새로운 세계를 위한 눈의 몸통
영국사랑 열린강좌 23회 참고 자료(PDF)

영국사랑 열린강좌 24회 1강 : 바른 이미지 읽기로 날개달린 눈 갖기 1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4회 2강 : 바른 이미지 읽기로 날개달린 눈 갖기 2부
영국사랑 열린강좌 24회 참고 자료(ZIP)

http://04uk.com/new/bbs/board.php?bo_table=005&wr_id=146

 **Rp' Institute** 강사/ 전하현 bookclub21@hotmail.com

 홈페이지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rpschoo>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PInstitute?ref=hl>